

호텔기업 재무비율의 코로나19 전·후 차이 비교분석

서강¹, 김시중^{2*}

¹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²우송대학교 C-MBA대학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COVID-19 in the Financial Ratio of Hotel Companies

Shu Kang¹, Si-Joong Kim^{2*}

¹Graduate School,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osong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C-MBA, Woos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비율의 코로나19 전·후 차이의 비교분석에 목적이 있었다. 서울 소재 5성급 12개 호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6개 재무비율을 산출 후, 대응표본에 대한 가설을 대응표본 t검정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및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부정적으로 변동되었으나 이자보상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안정성 및 현금흐름 지표의 재무비율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코로나19 후 6%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영업이익증가율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총자산회전율은 2019년 0.40회에서 2020년에는 0.25회로 감소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영성과지표를 관리하여 경영성과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호텔기업 부실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financial ratio between the before and after COVID-19 scenarios for hotel companies. Sixteen financial ratios were calculated for 12 5-star hotels in Seoul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2019 and 2020, which included before and after COVID-19 scenarios. Subsequently, the corresponding sample hypothesis was t-tested.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first, that the operating profit ratio on sales, net asset return ratio, and net equity ratio changed negatively due to COVID-19. But,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net sales margin were not affected. Second, COVID-19 did not affect the financial ratio of stability and cash flow indicators, but the operating cash flow ratio had a negative effect of 6% after COVID-19. Third, although the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had a negative impact due to COVID-19, the sales growth rate, total asset growth rate, and net profit growth rate were not affected. Fourth, the total asset turnover decreased from 0.40 in 2019 to 0.25 in 2020.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insolvency of hotel companies by managing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roving business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Keywords : Financial Ratios, Management Performance Analysis, 5 Star Hotel, Corona-19, Paired T-test

*Corresponding Author : Si-Joong Kim(Woosong Univ.)

email: sjkim@wsu.ac.kr

Received December 22, 2021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January 28,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1. 서론

국내 호텔기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우 큰 경영상의 어려움에 놓여있다. 2021년 4분기부터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서울지역 호텔의 경우에는 객실 가동과 함께 단체 관광 및 기업 행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식음료 부문에서 매출이 급증하며 호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며 연말 특수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었다[1]. 그러나 최근의 델타 변이 후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에 의한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2021년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 47일 만에 다시 중단되고 4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2]하여 호텔기업은 다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2021년 10월 국내 출입국 규모는 21만 6,81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약 6% 수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출국자 수는 93만 5,208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7.3%, 그리고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78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7.3%로 나타났다[3]. 서울 소재 호텔도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전체 이용객 수는 342만 9,00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77만 4,000명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나타났다[4].

국제 경제의 영향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여건상 국내 호텔기업도 코로나19 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불황의 수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수익 급감과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경영 부실과 도산하는 호텔기업이 속출하며 총체적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 산업 분야 중의 하나인 호텔 업계의 경영상의 위기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전·후의 호텔 재무비율에 대한 차이 분석 연구는 호텔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재무관리 및 경영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하다. 한편, 호텔 외부적인 측면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중앙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 시행에서 중요 경제지표의 활용을 위해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호텔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지표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호텔기업의 위기관리와 부실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호텔기업의 생존을 위한 리스크 감소 경영 전략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기업 내부 환경, 거시적 정치·경제환경, 특정 산업의 동태적 환경 등의 상호 작용으로 생존 또는 도산을 직면하게 된다. 이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경영

악화, 생존 또는 도산 방지를 위하여 재무비율 및 경영성과 지표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5-14]가 수행되었다.

관광산업의 핵심 업종인 호텔기업은 일반기업 제조업과는 다른 재무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호텔기업은 초기 자본투자가 크고 인적의존도가 높은 특화된 산업이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의 장기화는 곧바로 경영성과의 취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부실한 재무성과와 재무비율의 유지가 불가함을 초래한다. 이에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건실한 재무구조와 재무비율 유지를 통한 지속적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여러 산업분야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가 특정 산업분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여러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호텔 및 관광분야의 코로나19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10-14] 및 항공사와 여행사 등의 관광기업 대상으로 재무비율에 관한 연구[5-9]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호텔기업 대상으로 재무비율을 활용한 재무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호텔기업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환경요인 변화에 대응을 위해 재무비율 분석 등의 경영성과 지표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호텔기업의 부실화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실화 예방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12개 5성급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16개 재무비율 차이를 규명함에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호텔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경영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비율 관리,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실무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호텔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호텔기업의 경영환경에 맞는 성과평가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재무비율분석

기업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비율을 통한 재무상태 및 경영내용 분석이 요구된다.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은 재무제표에서 이론적 연관 관계와 경제적 의미가 있는 항목 간의 관계 지표이다[15]. 호텔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유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호텔기업의 현금흐름, 경영성과, 재무적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

용하는 것이 재무비율 분석이다. 재무비율분석이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특정 항목 또는, 특정 항목과 대다수 항목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16].

본 연구에서 16개 재무비율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16개 재무비율을 경영성과지표의 분류에 따라 수익성 지표, 안정성 지표, 성장성 지표, 현금흐름 지표 및 활동성 지표로 구분되고 있다. 안정성 지표의 주요 비율로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익성 지표에서는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그리고 성장성 지표에서는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 그리고 현금흐름 지표로는 현금흐름 비율이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비율 및 경영성과 지표로 활용한 분석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지역 호텔기업 대상 경영분석 연구[17]에서는 전국의 호텔기업과 인천 및 경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전국 및 경기지역(인천 및 경기) 간 차이를 재무구조 및 경영분석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재무적 경영성과지표의 지역 간 차이를 호텔기업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18]에서는 안정성 지표, 생산성 지표, 활동성 지표 및 수익성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서울과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지표로 재무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호텔업 및 다른 산업 분야의 재무비율을 변수로 활용한 경영성과 지표 관련 연구들[15-21]이 수행되었다. 2개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분석 연구[8]에서는 재무비율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 활동성,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 관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호텔 자체의 재무구조 체질을 개선 강화하여 타 호텔과의 경쟁에 뒤지지 않게 기업이 과학적 합리화로 관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특급호텔의 재무비율 비교 및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19,20]로, 특급호텔 재무비율 비교분석 연구[19]에서는 재무비율의 유동성, 안정성 및 수익성 지표 관련 재무비율을 대상으로 재무비율을 비교분석하여 재무상태 및 영업활동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이익 및 기업가치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 자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1급과 특2급 호텔간 재무비율의

차이 연구[20]에서는 재무비율을 안전성 비율, 수익성 비율 및 활동성 비율로 분류 후 호텔 등급 간 차이를 주요 재무비율 16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는 여행사 및 항공사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경영분석을 한 연구들[5,21]이다.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지표 변동 비교 분석한 연구[5]에서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영성과지표로 14개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전·후인 2020년과 2021년의 재무비율 변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 관련 5개 재무비율, 성장성 지표 3개 재무비율 3개에서도 매우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한편, 총자산회전율은 2019년 0.95회에서 2020년 0.57회로 나타나 0.38회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형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간의 비교 분석 연구[21]에서는 저가 항공사의 매출 증가율이 높더라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대형항공사에 비교하여 수익성이 취약한 것은 저가 항공사의 재무구조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재무비율을 활용한 관광산업 분야의 경영성과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분석의 주요 변수로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주요 재무비율을 분석대상 변수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호텔기업 재무비율의 코로나19 전·후 차이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코로나19 전·후 2019년과 2020년 2년간 대응표본의 재무비율 모평균 차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선행연구[5,20]를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 재무비율은 선행연구[5,16-20]에서 사용된 주요 16개 재무비율로 선정하였다.

이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두 대응표본의 모평균(재무비율) 차이 검정을 위하여 다음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Null hypothesis $H_0 : \mu_1 = \mu_2$

Alternative hypothesis $H_1 : \mu_1 \neq \mu_2$,

여기에서 μ_1 은 2019년의 모평균(재무비율), 그리고 μ_2 는 2020년의 모평균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코로나19 이전(2019년) 기준의 모평균(16개 재무비율)과 코로나19 이후(2020년) 기준의 모평균은 같다.

3.2 연구표본,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의 재무비율의 차이 비교 분석을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을 2019년으로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를 2020년으로 기준 시점을 설정하였다.

연구표본의 자료는 한국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자료를 기초하여 분석자료 추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대상의 재무비율 16개[수익성 지표 5개(이자보상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성 지표 4개(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안정성 지표 5개(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현금흐름 지표 1개(영업현금흐름 비율) 및 활동성 지표 1개(총자산회전율)]를 산출하였다.

한편, 연구대상 서울 소재 5성급 12개 호텔기업 (조선호텔 앤리조트, 호텔신라, 호텔롯데, 씨디오텔코리아, 그랜드앰베서더, 스위스 그랜드호텔, 메이필드호텔, 콘래드 서울 호텔, JW메리어트호텔,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파르나스호텔, KAL호텔네트워크)은 2020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의 수집 및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9년과 2020년의 분석대상 12개 호텔기업의 재무제표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각 호텔의 재무제표를 자료로 재무비율별 산정 방식에 의해 분석대상 16개 재무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산출된 2019년과 2020년의 호텔별 16개 재무비율을 변수로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한 연구가설 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에 활용된 프로그램은 16개 재무비율의 산정은 Excel에 의해서,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은 통계프로그램 SPSS 26.0에 의해 이루어졌다.

4. 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가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두 대응표본의 모평균(재무비율) 차이 검

정을 위한 대응표본 t검정(T-test)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Results of Hypothesis Test

Indicators	Financial Ratios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Result of Paired t-test		Whether to adopt the hypothesis
			Before	After	t	p	
			COV-19	COV-19			
Profitability	Income to sales	.136	-2.32	-107.92	1.613	.135	Adopted
	Interest coverage ratio	-.304	8.00	-248.04	1.237	.242	Adopted
	Income to assets**	.209	-.94	-7.71	3.502	.005	Rejected
	Operating income to sales*	.288	5.30	-47.38	2.424	.034	Rejected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892	6.43	-8.75	3.544	.005	Rejected
Stability	Current ratio	.704	46.17	51.29	-5.43	.598	Adopted
	Quick ratio	.979	.38	.42	-6.79	.511	Adopted
	Debt ratio	.448	31.32	21.58	-.437	.671	Adopted
	Capital Adequacy ratio	.886	.46	.44	.622	.546	Adopted
	Total borrowings &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949	25.43	27.39	-1.018	.330	Adopted
Growth	Growth Rate of sales	.046	11.09	8.46	.046	.964	Adopted
	Growth Rate of operating income*	-.206	566.59	-501.80	2.413	.039	Rejected
	Growth Rate of net income	-.366	2.04	382.10	-1.119	.292	Adopted
	Growth Rate of total assets	-.009	14.97	16.64	-.111	.914	Adopted
Cash Flow	Ratio of cash flows**	.617	3.20	-3.00	1.713	.001	Rejected
Activity	Total assets turnover	.820	.40	.25	1.413	.185	Adopted

Note: **, p<.01, *, p<.05

첫째, 호텔기업의 수익성 지표 5개 재무비율 분석결과, 자기자본순이익률 변수의 코로나19 전·후 대응표본 상관계수는 0.892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수익성 지표 5개 재무비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유의확률(양쪽) = 0.034 < 0.05이므로, 두 집단(2019년과 2020년 매출액영업이익률)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한편, 총자산순이익률 및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재무비율을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이자보상비율, 매출액순이익률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2020년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부정적으로 큰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 매출액순이익률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자보상비율 평균값은 코로나19 이전 8.00%에서 코로나 이후 -248.04%로 감소하여 부정적 영향의 폭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

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코로나19 이전 -2.32%에서 코로나 이후 -107.92%로 나타나 총 105.60%의 부(-)의 변화를 보였다.

둘째, 안정성 지표 5개 재무비율 분석결과, 4개의 안정성 지표 재무비율에서 대응표본의 상관관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지표 재무비율에 대한 t 검정 결과, 유동비율은 유의확률(양쪽) = 0.598 > 0.05이므로, 2019년과 2020년의 유동비율 재무비율의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유동비율에 대한 가설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재무비율도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에 안정성 지표의 모든 재무비율 즉,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무비율 변화에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장성 지표 재무비율에 대한 분석결과, 4개의 모든 재무비율에서 대응표본 상관계수가 낮아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의 성장성 지표에 대한 t 검정 결과, 매출액증가율은 유의확률(양쪽) = 0.964 > 0.05이므로, 두 대응표본(2019년과 2020년의 매출액증가율 재무비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매출액증가율 재무비율에 대한 가설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총자산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에 대한 검증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이들 3개의 재무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분석대상 기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증가율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영업이익증가율 588.59%에서 코로나 이후 -501.80%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분석대상 호텔기업의 현금흐름 지표인 영업현금흐름비율 분석결과, 대응표본 상관계수가 0.617로 나타나 매우 강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영업현금흐름비율 변수는 유의확률(양쪽) = 0.001 < 0.05로 나타나 두 집단(2019년과 2020년도의 영업현금흐름비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분석대상 호텔기업의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 분석결과, 2019년과 2020년의 2년간의 대응표본 상관계수가 매우 강하게 0.820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두 집단(2019년 및 2020년의 총자산회전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2년간의 총자산회전율 평균값에 대한 가설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총자산회전율은 코로나19 이

전인 2019년 0.40회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0.25회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호텔기업의 재무비율의 코로나19 전·후의 차이 비교분석에 목적이 있었다. 이에 국내 서울 소재 5성급 12개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6개 주요 재무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변수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로 구분한 대응표본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 지표의 재무비율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이자보상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코로나19로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게 부정적으로 변동되었으나 이자보상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안정성 지표의 재무비율에서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에 안정성 지표의 모든 재무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성장성 지표의 재무비율에서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및 매출액증가율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이들 재무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이익증가율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현금흐름 지표인 영업현금흐름비율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영업현금흐름비율은 2019년에 3.20%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3.00%로 큰 폭의 부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 평균값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0.40회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0.25회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검증결과를 종합하며 살펴보면, 총 16개의 재무적 경영성과지표 재무비율 중 5개의 재무비율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익성, 성장성 및 현금흐름 지표의 재무비율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의 재무비율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재무적 측면에서의 학문적 연구결과와 더불어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를 기존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호텔기업과 경기도지역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경영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결과[17], 안정성 지표 측면에서, 경기도지역 호텔이 전국 호텔기업에 비교하여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높으며, 이의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매우 낮아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차입금의존도의 안전성 지표 재무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크지 않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의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연구가 부족하여 호텔과 유사한 경기의 흐름이 반영된 관광산업 분야로 여행사 대상의 코로나19로 인한 재무비율의 변화 비교의 선행연구결과를 본 연구결과와의 수익성 지표의 재무비율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5]. 여행사 대상 선행연구에서는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및 총자산순이익률 모두 큰 부정적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큰 변동이 있었으나, 이자보상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호텔과 여행사 간의 재무비율에서의 영향의 차이는 호텔과 여행사의 산업간 재무 및 수익 구조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호텔기업들은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비율의 관리를 통하여 경영성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호텔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호텔기업 경영의 성과평가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호텔기업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분석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감염병 위험과 다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호텔기업이 손익 관리, 업무개선, 경영합리화, 매출 증대, 재무관리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 연구가 더욱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호텔기업들은 경제외적인 변수에 의한 위기 상황 발생시

경영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비율의 관리를 통하여 호텔기업 부실화 방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12개 5성급 호텔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비율 비교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통하여 호텔 재무비율 변동 차이를 규명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산출하여 호텔 경영자가 유용한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에 실무적 의의가 있으며, 호텔별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결과의 활용에 의의가 있다. 과거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분석대상 호텔 수를 특정 호텔 1-3개, 그리고 분석대상 재무비율의 수에서도 5개 정도로 제한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 및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호텔 및 재무비율의 수를 확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집단의 표본의 수에서 서울지역 전체 5성급 12개 호텔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 재무비율의 수도 16개로 확대하여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모집단의 자료의 수, 표본 자료의 수집방법 등에서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연구결과와 일반화가 가능한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 비교하여 차별적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호텔 경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영성과자료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결과는 호텔의 재무평가 자료와 함께 다른 경영자와 학자들이 호텔기업 경영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영성과지표 중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재무비율보다 확대된 16개의 재무비율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무적 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재무비율의 수를 확대한 연구 그리고 정성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분석 대상을 서울 소재 12개 5성급 호텔로 제한하였다. 이에 연구의 일반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 및 다른 등급으로 확대한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재무비율 비교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하였으나, 다른 연구 모집단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 등에 의한 모평균의 차이검증 등의 연구 그리고, 호텔기업의 부실화 예측 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Newspim, "With COVID-19, luxury hotels such as Lotte and Shilla are crowded...The year-end special expectations", Available from: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105001069> (accessed Jan. 24, 2022).
- [2] Maeil Business News Korea, "Boomerang's step-by-step recovery.The year-end economy is at risk due to strengthened quarantine", Available from: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44703/> (accessed Jan. 24, 2022).
- [3] Energy Economic New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said, "Hotels and theme parks should reduce transportation inducement charges this year"", Available from: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26010004216> (accessed Jan. 18, 2022).
- [4] The Korea Travel Times, "Those who entered and left the country in October were 6% before COVID-19", Available from: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76> (accessed Jan. 18, 2022).
- [5] S. J. Kim,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in Financial Ratios of Travel Agencies before and after COVID-19,"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 694-701, 2021. DOI :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694>
- [6] S. D. Suh,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of Korean Hotel Industry"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1, no. 4, pp. 71-89, 2011.
- [7] C. E. Lee, K. S. Jung & I. K. Hwang, "Analysis of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Profit/Loss-Making Hospitals under the IMF," *Journal of Korea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vol. 6, no. 2, pp. 156-172, 2001.
- [8] J. H. Won & Y. B. Chae, "A Study on the Financial Analysis of Deluxe Hote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13, pp. 190-210, 2001.
- [9] S. J. Kim,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in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before and after COVID-19 : Focused on Airline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25, no. 5, pp. 87-104, 2021. DOI : <https://doi.org/10.18604/tmro.2021.25.5.5>
- [10] A. Cho, "A Study of the Change in Korea-Japan Tourism Relationship from 2019 Japan's Export Regulation to 2020 COVID-19 Crisis,"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3, no. 1, pp. 112-137, 2021. DOI : <https://doi.org/10.29154/ILBI.2021.24.112>
- [11] S. Y. Koh,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Tourism in Jeju Local Resi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ol. 27, no. 2, pp. 164-178, 2021. DOI : <https://doi.org/10.26863/JKARG.2021.5.27.2.164>
- [12] Y. S. Kim, "Analysis for Economic Impacts of the Tourism/Culture and Whole Industry due to Reduced Inbound Visitors after the COVID-19 Outbreak,"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45, no. 3, pp. 33-53, 2021. DOI : <https://doi.org/10.17086/ITS.2021.45.3.33.53>
- [13] H. G. Song, "A study on food tourism perception using big dat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 24, no. 5, pp. 177-200, 2021. DOI : <https://doi.org/10.47584/ifm.2021.24.5.177>
- [14] A. Dong & X. G. Liu, "The Phantom and Countermeasures of COVID-19 on the Chinese Tourism Industry," *Tourism Research*, vol. 45, no. 2, pp. 309-325, 2020. DOI : <https://doi.org/10.32780/ktidoi.2020.45.2.309>
- [15] S. J. Song, "Analysis of hotel companies' financial statements,"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5, no. 5, pp. 203-224, 1998.
- [16] A. J. JO,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ourism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in Financial Ratio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5.
- [17] H. S. Kim, "Hotel financial analysis of Kyeong-gi province for competitive power up,"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no. 21, no. 1, pp. 401-410, 2007.
- [18] S. J. Kim, "A Comparison Study of 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 Focusing on Regional Differential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22, no. 4, pp. 789-805, 2018. DOI : <https://doi.org/10.18604/tmro.2018.22.4.34>
- [19] K. G. Kim, "A Study on the Financial Ratio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Tourist Hotel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7, no. 2, pp. 19-36, 2003.
- [20] S. T. Chun & H. J. Kim, "A Difference Analysis of Financial Ratios of Five Star Hotels," *Association of Tax and Accounting*, vol. 31, pp. 53-72, 2012. DOI : <https://doi.org/10.35349/tar.2012..31.003>
- [21] Y. L. Jung, "Financial Ratio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Financial Distress: Comparative Analysis of Low Cost Carriers and Full Service Carriers in Kore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Tourism, Sejong University, pp. 43-59, 2009.

서 강(Shu Kang)

[정회원]



- 2018년 9월 ~ 2020년 2월 :
우송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회계
전공 (경영학 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국제경영전
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세무회계, 경영분석, 재무관리

김 시 중(Si-Joong Kim)

[정회원]



- 1989년 6월 : 빈대학교 상대 대학
원 관광경영학 전공 (경영학석사)
(오스트리아)
- 1992년 4월 : 빈대학교 상대 대학
원 관광경영학 전공 (경영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C-MBA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관광경영분석, 관광경제, 관광마케팅